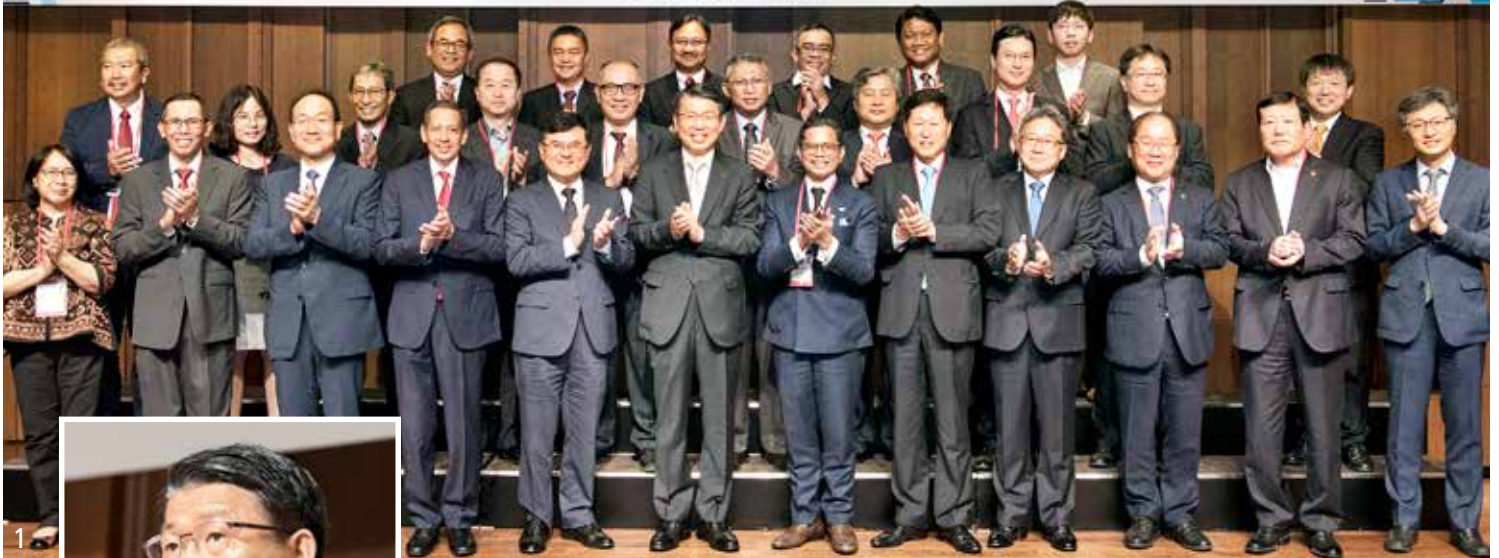


한-인도네시아 정유·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포럼 2019 Partnership Forum – Oil & Gas Downstream Indonesia

2019. 7. 2(화) 신라호텔



1 수출입은행은 7월 2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유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희정 기재부 차관보, 은성수 수은 회장, 파할라 만수리 페르타미나 CFO, 이건기 해건협 회장.
2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7월 2일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유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은, 인니 석유가스공사에 15억달러 기본여신약정

한국수출입은행이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가스공사 페르타미나(Pertamina)와 15억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FA)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수출입은행이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체결한 첫 FA다. 또 페르타미나가 다른 나라 수출금융기관(ECA)과 FA를 체결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기업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다수의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된 주요 발주처와 선제적으로 체결하는 한도방식 금융약정으로, 공통 금융조건을 미리 합의해 향후 기업의 수출거래 등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이그나시우스 탈룰렘방(Ignatius Tallulembang) 페르타미나 메가 프로젝트 이사는 “현재 하루 100만 배럴 생산에서 2026년까지 20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300억달러에 달하는 정유설비

신·증설을 위한 대규모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구매전략을 설명하고 소규모 그룹미팅과 업체별 일대일 면담도 진행했다. 은성수 수은 회장은 “이번 약정체결을 계기로 동남아 최대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정유·석유화학설비 등 대규모 사업에 동반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페르타미나와 우리 기업 간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하는 한편, 여타 신남방 국가들과의 약정 체결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